

# 청년·신혼부부 위한 '40년 모기지' 나온다

금융위, 만 39세 미만·7년 내 부부 전용 내달 시범 도입

년 2.90% 고정금리·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 가능

만 34세 이하 전·월세 대출 한도 상향·보증료 인하

결혼한 지 2년차에 접어든 유모(여·37)씨 부부는 지난해 3억원 상당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내년 입주 앞두고 집을 장만하기 위해 한도 2억 1000만원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다만 30년 만기로 2억1000만원 보금자리론에 가입하면 매달 지출할 월 상환액이 87만원 수준에 달해 가계살림이 빠듯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유씨 부부의 걱정은 다소 줄어들게 됐다. 오는 7월부터 도입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선택하면 월 상환액이 기존보다 13만원 줄어든 74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정금리로 금리 인상의 불안도 없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됐다.

오는 7월부터 다음 달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 상품이 출시돼 월 상환액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지만,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40년 만기

대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로,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시범 도입될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만 39세 미만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 가구는 만기를 길게 설정해 매달 빠져나갈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씨처럼 2억원을 30년 만기로 받을 대출 받을 경우 월 상환금액은 82만7115원(이자 연 2.85%)이지만, 40년 만기로 설정할 경우 70만 4491원(이자 연 2.90%)으로 14.82%(12만2624원) 감소한다.

특히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 상승 위험을 없앨 수 있는 데다,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는 게 장점이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도 세대당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늘린다. 신혼부부를 비롯해 집을 구매할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은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이나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인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상품은 2019년 5월 출시 이후 2년간 10만8000명이 5조5000억원을 지원받았다.

대출 한도가 작아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전세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 등 5000여명이 이번 한도 상향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추가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또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인하돼 연간 최저보증료를 적용 받는 6만 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66만 가구 보증료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의 최저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아지고, 전세대출보증은 0.12~0.4%에서 0.06~0.2%로 줄어든다. 전세반환보증은 0.07%에서 0.04%로 인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 달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주금공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원까지 이용 가능)는 전산 준비 및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 광주은행-광주과기원, 인공지능 금융 육성 협약

광주은행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인공지능(AI)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손잡는다.

광주은행은 송중욱 은행장과 김기선 총장이 지난 18일 '인공지능 산업육성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협약내용은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우수인재 확보 ▲인공지능 관련 지역 업무협력 강화 ▲금융 관련 인공지능 산학협력 수행 등이다.

광주은행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과 고객상담 자동응답 시스템인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펀드 추천 서비스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8월 예정된 새로운 스마트폰 앱(APP) 오픈을 위해 재구조 개발을 진행중이며, 지난 4월 마에이더(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허가 신청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송 행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산학협력을 공동 발굴하고, 실질적인 혁신 금융서비스를 도모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 성장의 금융 파트너로 상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송중욱(오른쪽) 은행장과 김기선 총장이 지난 18일 광주시 북구 오희동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인공지능 금융산업 육성' 협약을 맺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 대상 공모

광주·전남중기청 오늘부터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1일부터 7월9일까지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쟁력까지 지원, 복합정년물 조성, 7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3개 사업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특징으로는

'재난 대비 강화'가 있다. 화재, 수해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해 상인과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화재공제나 민관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전체 영업 점포의 25% 미만인 곳은 사업 신청을 제한, 50%가 넘는 곳은 우대 지원한다. 그동안 전통시장에만 지원했던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대상도 상점가까지 확대한다.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재난 발생에도 정부 지

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률이 높은 곳에 가점을 부여해 전통시장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도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통시장사업을 신설해 온라인 플랫폼 인점과 배달, 배송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대 지원 사항으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곳(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한 곳)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50% 이상인 곳은 전 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고소득 지역일수록 안센 많이 맞는다

지난달 말 기준 30대 남성 인구 대비 안센 백신 예약률은 고소득 지역일 수록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말 기준 30대 남성 인구 대비 전국 평균 안센 백신 예약률은 25.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 예약률은 각각 24.5%와 24.3%로,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 8번째를 차지했다.

예약률은 서울이 29.8%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0.3%로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육해공 통합본부 계룡대가 위치한

충남 계룡시가 77.4%로 가장 높았으며, 육군 최대 군사교육시설인 상무대가 있는 장성군(30.9%)도 상위 20위권에 들었다.

반면 안도군 예약률은 18.1%로, 전국 시군구 하위 2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울릉군(12.8%)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예약률 상위 20곳 중 대표적 부유지역인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이 11곳, 경기도가 6곳으로 수도권이 85%를 차지했다"며 "여수도 높은 예약률을 보였는데, 이와 관련 시군구별 소득·학력·숙련도와 매우 강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백신 맞기 전 '백신 보험' 가입하세요

이달말~내달 초 한시 출시...아나필락시스 부작용 한정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백신 보험'이 이달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보험사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1일 '백신 부작용 보험'을 건강보험 특약 또는 주계약 단독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 상품이 속칭 백신 보험 또는 백신 부작용 보험으로 불리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험(주계약) 또는 특약이다. 피보험자가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보장한다.

아나필락시스란 음식물, 독소, 백신 등 특정 외부 항원에 반응해 일어나는 급성 전신성 알레르기질환을 가리킨다. 드물게 발생하지만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아나필락시스소크를 제외한 다른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현재 팔리고 있는 백신 부작용 보험은 삼성화재

건강보험의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과 라이나생명의 미니보험 '(무)안심되는 아나필락시스소크진단보험' 뿐이다. /연휴뉴스

### ■ 로또복권 (제968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	5	12	14	24	39	33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667,729,683				13
2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37,251,694				97
3	5개 숫자일치	1,159,633				3,116
4	4개 숫자일치	50,000				148,150
5	3개 숫자일치	5,000				2,329,460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 3등: 30만원 상당(3명) 무무밥솥
-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가(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